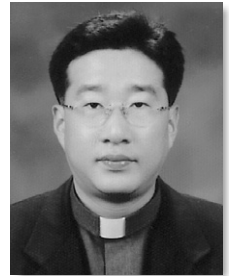


주일의말씀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류지현 마태오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람들은 ‘소유의 문제’로 분쟁을 많이 일으킵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냐, 너의 것이냐? 개인의 것이냐, 국가의 것이냐?’를 따집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세금의 문제도 결국 ‘소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금 징수는 국가의 보호와 혜택을 입고 사는 국민에게 국가가 그들 소득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는 합당한 권한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헤로데 당원들은 그런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올라가며 썩으려 합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황제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요, 로마 식민통치의 앞잡이가 될 것입니다. 다른 한 편,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대항하는 세력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딜레마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 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라는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은 참된 주인이신 하느님께 귀속(歸屬)되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다시 한 번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봅시다.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려라.”

내가 가진 것을 앞에 두고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누구의 것인가?” 나의 몸, 나의 정신, 나의 지력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 그것이 과연 누구의 것인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느님의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것이 하느님의 것이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느님께 돌려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느님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려 드리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려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려 드리며 살고 있는가?

생명의말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려라. (마태 22:21 참조)

제1독서 : 이사 45,1,4-6 제2독서 : 1테살 1,1-5 나 복음 : 마태 22,15-21.

그 외아들

문화홍보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 대해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해 ...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히브 1,1)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요한 14,9),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요한 10,30),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요한 17,10)하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 전체를 내어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나시는 분은 아버지와 완전히 꼭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와 같은 분,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분이라고 해서 ‘아들’이라 부릅니다.

삼위일체

한 분 하느님께 아버지, 아들, 성령의 세 위가 계신다고 하는 이 도리를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 다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할 진리를 하느님께서 굳이 가르쳐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아드님이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이 삼위일체의 완전한 일치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드님이신 예수님과 형제가 되고 한 몸이 되면 우리도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요한 20,17)이라고 부르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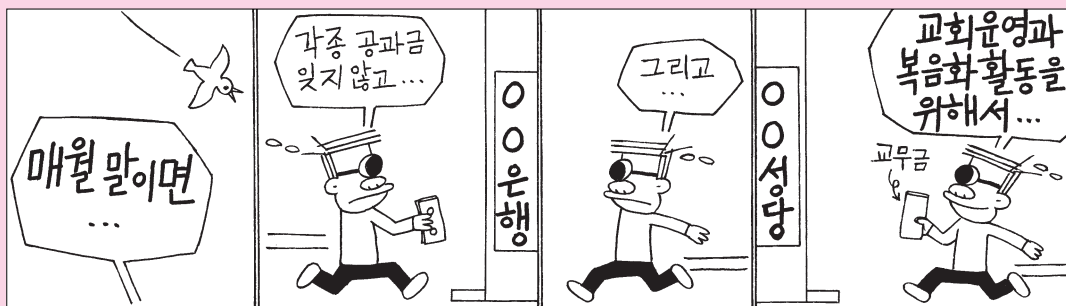
영원한 생명의 비밀

삼위일체의 신비를 사람이 머리로 다 알아들을 수 없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실천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목숨을 베풀기 위해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두 내어주는 사랑이 바로 삼위일체 신비의 핵심이고, 영원한 생명의 비밀입니다. 당신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인데,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요한 14,23)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사도께서는 “의로운 이를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로마 5,7)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아드님을 희생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찬송에서는 이렇게 노래하며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종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넘겨주신 사랑!”

둘다 잊지 말고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 미사

연중 제29주일

입당성가

17 정의의 하느님

화답송

◎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려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153 오소서 주 예수여

영성체송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목숨을 구하시고 굶주릴 때 먹여 살리시네.

파견성가

16 온 세상이 주님을

영성의 향기

:: 섬기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봉사하시는데 그 제자들은 봉사를 받으려고만 한다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곤 합니다. 심장이 피를 받아 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터져 버릴 것이고, 몸 전체가 죽어갈 것입니다. 갈릴래아 호수는 물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기 때문에 생명이 가득 찬 곳이 되었고, 사해(死海)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를 않기 때문에 아무 것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보니 내가 필요한 것을 받기만 하고 나를 축복해 줄 공동체를 찾아다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봉사해 주길 기대하고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의 삶은 그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정 반대로 행동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까 묻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줄까? 나의 이웃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는가?”하고 물어야 합니다. 

- 교구사목국 권가타리나 수녀 -

교부들의 지혜

온 세상에 가득 찬 새로운 성전



우리 구세주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옛 성전보다 비할 수 없이 더 영광스럽고 더 찬란하며 더 위대한 하느님의 성전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옛날 성전은 하나였지만 그것은 예루살렘에만 있었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사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 주 하느님이신 외아드님께서 우리와 같은 분이 되시고 우리를 비추어주신 다음에는, 온 세상에 성전이 늘어나 하느님을 희생물과 영적인 향기로 경배하는

무수한 경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 알렉산드리아의 성 치릴로 주교의 〈하께서 주해〉에서 -

요한 바오로 2세 시복 감사미사

일시: 10.22(토) 19:30, 계산주교좌성당

주례: 조한길(타대오) 대주교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0.17(월)은故이창호(안드레아)신부 3주기입니다.

모임/행사

제3회 성경암송(영어,우리말)발표대회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대구대교구 전례꽃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10.17(월) 14:00, 교구청 별관 1층 대화합실

가톨릭미용인회 '빛' 모임

일시: 10.24(월) 20:30, 요안나미용학원

문의: (018)560-3086 / (010)8397-9783

우성공원 위령미사 (423-1313)

일시: 11.2(수), 우성공원

문의: 10.23(일)까지 대봉성당 사무실

성소/피정

마리아 영성피정(성체현시, 미사안수)

일시: 10.19(수) 13:00~17:00, 지도: 강요셉 신부

문의: 삼덕성당, 422-6691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일일대피정

일시: 10.31(월) 10:00~17:00, 교구청 교육원 대강당

강사신부: 신원식 세례요한(예수회)

문의: (010)5493-1819, 점심제공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기율 1·2차 피정(회비: 1만 원)

일시: 10.22(토)~23(일), 11.5(토)~6(일)

대상: 20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여성

이삭모임: 매월 넷째 주일 13:30

문의: 659-3404 / (010)3803-8973

성소식별 피정

일시: 11.5(토)~6(일), 1박 2일

장소: 뜻쟁포교배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대상: 수도성소를 갈망하는 35세 미만 미혼여성

문의: (010)8519-3431 / 313-3429

곶벚나무알프란치스코회 성소모임

일시: 매월 넷째 토요일 14:00

장소: 대구 월배수도원

문의: (010)5064-7467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피정

일시: 10.22(토) 17:30~23(일) 14:00, 골롬반본부

대상: 해외선교사제에 관심 있는 젊은이

문의: (010)6818-3737

교육/모집

제20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일시: 10.29(토) 15:00~21:00, 매주 토(6주간)

장소: 월성성당 내 3대리구청

대상: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누구나 가능

문의: 641-5678, 신청비: 15만 원

자성인을 위한 신앙강좌

일시: 10.29(토) 10:00~12:30, 마감: 27일(목)

장소: 남산동 신학대학 (참가비: 5천 원)

주제: 아홉이야기, 이소엘이 되어라(배아사)수녀

11.2(토): 대림절 및 성탄시기 전례미사(최창덕 신부)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가톨릭문화관 교육생모집(476-6211)

내용: 통기타, 바이올린, 플루트, POP, 초크아트

제18회 대구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연수

일시: 12.31(토) 출발(6주), 410만 원

대상: 초4~중3 (선착순: 40명)

설명회: 11.12(토) 15:00

문의: 656-6655(ARS4)

* 제11회 성인 해외봉사, 어학연수 모집 중

전례꽃이 수강생 모집

일시: 10.10(월)~11.20(일)

문의: (010)2506-6259

네이버 카페: 대구대교구 전례꽃연구회

뿌에리칸뜨레스 합창단 17기생 모집

대상: 초등학교 3학년~6학년까지

문의: 가톨릭음악원, 255-4847

2012년 백합어린이집 입학설명회

일시: 10.19(수) 10:30

장소: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 내 어린이집 강당

문의: 256-6862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 나는 성경공부'

전문 지도자 교육(복음편)

일시: 10.24(월) 13:00~17:00, 8주

장소: 1대리구청 강의실 13:00~17:00

회비: 15만 원(국민 80267-95-100667 재 성바오로)

문의: 대구 바오로딸, 425-5185

프란치스코 영성강의 및 미사

일시: 10.22(토) 14:00

장소: 프란치스코눔 (월배수도원 뒤)

문의: 재속프란치스코회,

632-9800 / (011)9594-9441

제50차 세계성체대회 한국 참가단 모집

일시: 2012.6.7(목) ~ 19(화), 12박13일

장소: 아일랜드 더블린

주제: '성체성사: 그리스도와 더불어

또 우리 사이에 이루는 친교'

주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02)460-7686

안내

교구법원 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당: 장성근, 우영애(루시아), 박지향(안나), 박영표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미사	10월 17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10월 17일(월) 오전 11시	경산성당
한티성지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7일(월) 오전 11시	한티순교성지	김천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10월 18일(화) 오전 10시	평화성당

이원 의료기

혈압계·혈당계·휠체어·인마기
뜸·부항기·찜질기·체온계
글루코사민·오메가3·칼슘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니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 053-256-2512(대표), 2513

2484 익스프레스

칠 곡 313-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여기(바오로) 011-514-3855

송월타올

* 인쇄무료 *

이영용(베드로), 심옥섭(미카엘라)

☎ 010-9431-3276, 629-0745

대명2동 199-1번지 교대앞 영선시장 내

28년 전통 성가정의 만남

성심결혼

(국가등록업체·보증보험가입업체)

* 전문직종 및 초혼 재혼 다량 확보 *

☎ 558-3003, 644-4007

비산네거리(서부 초등학교 옆)

류성철(마리아)

예금과 대출은

- 신속하고 간편한
- 아파트담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출
- 높은 수익과 안전한 예금

UNION SAVINGS BANK 유니온 저축은행

TEL : 256-1122

대표이사 박관희(안토니오)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와 임상교수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752-9797



백 신경외과 의원

○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진전
○ 요통, 좌골신경통, 목·허리디스크, 골다공증
○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근·골격질환

원장/전문의 백 윤 일(스테파노)

성당시장 네거리 628-4111

우리타운 & 우리웃

우리나라 수새끼에서 현재에서 직접 생산,
관리 및 감독하여 식안형 허기를 받은 보이츠!
전통차, 자연염색부류, 우리한복 다기 및 다도구

수정대례원 원장 정수자(엘리사벳)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2동 768-3(희망로)

010-3510-2184